

現代文學의

人間觀에 對한 小考

—歐美를 中心으로 해서—

康 英 淑

나는 여기서 歐美를 中心으로한 現代文學에 나타난 人間觀에 對한 論考를 해본다는 것이 매우 의심스러우며 나의 輕率感이 앞서 는것 같다. 그러나 이와같이 廣範圍한 現代文學에 나타나는 人間觀을 말해보고싶은 意欲과 衝動때문에 그들은 또한 억壓당하는 것이다. 머구나 우리 나라의 文學傳統과 現代 韓國文學의 位置를 把握해 보며 우리가 形成하려는 新人間과 우리나라 現代文學이 將次 어떤 方向으로 어떠한 人間을 形成하려는가 하는 問題를 밝히보며 는데서 急束한 問題는 바로 世界文藝思潮를 밝히 봐야겠고 現代에 이르는 人間觀과 新世代에 닥아올 人間을 研究해 보는데 있다고 보 겠다.

現代라하면 오늘날 一般的으로 二十世紀를 意味하는 것이 普通이 다. 그러나 五十餘年 前까지를 現代라는 말속에 包含 시키는 것은 多少 疑心 슌어운 點이 있으나 우리가 求心的인 意味에서 「現代」 란 말을 쓴다면 그것은 世界第一次大戰 以後부터 生覺하면 좋을듯 하다. 어떤 先輩는 十九世紀가 西紀一八一五年에 始作 되었으니 世紀末 「一九世紀」는 西紀一九〇四年에 終結된다는 說도있고 또는 十九世紀를 西紀一八九九年으로 끝나고 一九〇〇年 부터 「二十世紀」가 始作된다는 說도 있다.

、作家 金東里氏는 現代를 四期로 나누어서 말했다. 第一期「世紀初」第二期「二十年代」第三期「三十年代」第四期「二次大戰以後」로 나누고 있으며 또는 第一期를 世界第一次大戰以前 第二期를 一次大戰以後 第三期는 二次大戰以前 第四期를 二次大戰以後로 나누고 있다. 그러나 「아담·스미스」氏는 말하기를 現代「二十世紀」는 西紀一九〇四年으로 起算해도 좋다고 그의 歷史的 變遷過程論에서 말했다.

이와같이 여러 先輩들은「現代」를 어디서 부터 始作 하느냐 世紀末「十九世紀」를 어디서 終結을 내려야 하느냐는 여러가지 說이 있으나 이러한 限界에서 구구한 說明은 筆者는 어느程度 避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여기서「現代」란 말을 從前대로「二十世紀以來」란 뜻으로써 使用하며 한다. 그것은 卽 世界第一次大戰 以後 부터이다.

文藝復興에 出發한 近代文明이 十九世紀末까지 와서「世紀末」이란 標語 그대로 어떻게 할수없는 어떤 終結을 지었기 때문인 것이다.

그러면 現代文學이란 어떠한 것인가. 어떤 人間觀을 形成하고 있다는 말인가. 우리가 文學이라고 하는것은 人間 其自体를 描寫해 주며 探究해 주는것을 意味함이다. 그럼으로 文學은「人間的 探究」를 其 內容으로 삼고 있음은 勿論이며 文學이 生命이라고 하는 것은「人間探究」인 것이다. 文學으로써「人間的探究」아닌것이 없고 다만 各時代에 따라서 文學 속에 들어나는 人間觀이 다르고 人間探究態度가 다를 뿐이다. 文學이 恒常 其時代의 人間을 이야기해 주고 其時代에 處遇한 人間을 描寫, 探究 하기때문에 其時代 思潮에 따라서 人間觀과 人間探究態度가 다를 뿐이다.

바꿔 말하면 우리들이 가장 親密한 領野가 되어 있는 文學이 人間的 生活意識과 歷史와 社會의 諸關係에 對해서 其 獨特한 時代性

이 배경이 되며 나타나는 것이며 그러기 때문에 其時代의 意識이 文學을 낳아 주는 要素가 된다는것은 두말할 必要도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西歐의 文學이 보여주고 있는 人間觀과 文學이 取하고 있는 探究態度가 從來의 其들과 顯著한 差異가 있다는 느낌은 누구나 아니기질수 없이 보이게된다. 從來의 文學이라는 것은 其時代에있어서 自然性이라든지 浪漫性, 象徵性, 神秘性, 表現性, 或은 啓蒙性, 그리고 다른 여러가지 特性을 갖추고 제마다 나타났던 것이다.

●●●●●
 그럼으로 두개센스(文藝復興)時代로부터 十九世紀末葉에 이르기 까지 西歐文學의 背景을 이루고 있었던 人間觀은 其 무엇에 얽혀있든가 말이다. 人間들이 갈망 하는것이 무엇에 두웠든가? 人間이란 宇宙의 秩序속에서 宇宙를 다스리는 其 무엇에 服從하는 存在라는 生覺이었다. 그것이 神의 律法이거나 또는 自然法則이거나 간에 人間은 宇宙秩序의 一環으로써 其 무엇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라는 前提 밑에서 人間의 本質을 把握 하려는 探究態度가 從來의 文學이 取했던 方法이란 것이다.

그리하여 十九世紀 後半紀에 이르러서는 人間이 自然法則에 따르는 存在인바에야 自然科學의 方法을 文學的 人間探究에도 適用할수 있으리라고 믿어 自然主義(내츄테리즘)文學을 낳게 하였다고 볼수있다. 그러면 西歐에 있어서 現代文學은 어떠한 人間觀과 人間探究態度를 어디서부터 取하고 있을까. 그것은 從來 世紀末인 人間은 宇宙秩序의 一環이라는 生覺, 人間은 宇宙를 다스리는 其 무엇「神 또는 自然法則」에 따르는 傳統的인 낡은 思想에서가 아니라 現代는「人間의 自由」를 이야기 하고「人間解放」을 부르짖고 있는것이다. 人間이 自由롭다 힘은 人間이 宇宙秩序 밖에 있다는 말이며

「人間解放」을 부르짖음은 傳統的인 人間觀을 떨쳐 버리고져 함이라는 것이다. 宇宙秩序 밖에 있는 人間은 孤獨할수 밖에 없고 宇宙秩序속에서 說明될수 없는 人間은 自己 스스로에 對하여 不安과 絶望을 느끼는 것이며 宇宙에 따르지 않은 人間은 其 行動이 제 삼스럽게 問題가 된다. 「人間의自由」와 「孤獨」과 「不安의 行動」, 이러한 問題들은 바로 現代文學의 重要한 血脈을 이루고 있는 테마 「主題」이며 方向인 것이다.

現代文學(二十世紀)以前으로 돌아가서 世紀末(十九世紀末葉)까지의 文學이라는 것은 다만 人生을 描寫하는 것보다 宇宙秩序의 一環으로써 其 무엇이 다스림을 받는 것이라는 人間의本質과 「眞理」라는 것을 이야기 하는 그러한 것이었지만 적어도 오늘날에 있어서 現代文學이란 그렇게 쉽사로운 것이 아닌것이다. 다시말하면 神이 人間을 創造했다든가 또는 어떤 「理念」「戒律」「善惡意識」이 먼저 本質적으로 存在해서 人間行爲를 制約한다는것, 人間에게는 그런것이 先行 하지않은다는 것이다.

人間은 世上에 被投되었고 그냥 「無」이기 때문에 自由스럽게 行動할수 있다는 것이다. 無인 人間은 自由스러운 無限의 行動권이 豫期 된다는 것이다.

우리가 죽느냐, 사느냐, 하는 「삶」을 도마라 있고 「人間의 自由」와 「人間의解放」을 爲한 「現代」라 하겠다. 그것은 特殊한 條項에 依여져 있다는 것은 아니다. 「삶」을 도맡아 있는 現代文學은 그 어디에도 不遇한 處境에 빠진 우리들이 살아나갈 「길」을 보여주려고 한다. 그것은 곧 時代的인 負擔을 文學은 到底히 잊어 버릴수가 없다고 한다. 果然 文學은 人間의 自由스런 生活하고 있는 世代를 事實그대로 알려주었고 애쓰고 있는것이다. 요지음 흔히 쓰

고있는 「自由로운 存在」 「人間價値 發見」 이니 하고 쓰이는 用語를 使用한다면 「人本主義的 人間의 이마쥬」 니 「行動에依한 自由」 니 하는 말들이 솟아나고 있고 어떤 先輩는 말하기를 「人本主義的 人間觀形成」에는 實存主義 (Existentiellism) 哲學이 經濟的 影響을 미친 것이 아니라고 하나 「實存主義哲學」과 「人本主義文學」과는 直接的 影響을 받아서 形成된 것이라고 하겠다. 佛蘭西의 有名한 實存主義哲學家 「장·싸르트르」는 實存主義哲學도 現代 人本主義的 人間觀에 앞섰던 것이 아니고 차라리 佛蘭西文學속에 들어 나는바와 같이 「人本主義的 人間觀」과 自己의 文學과 哲學과의 綜合로 같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더구나 世紀末葉부터 挑撥되기 始作한 經濟的 危機는 마침내 西紀一九二〇年代를 접어든 世界第一次大戰이 動亂的인 危機에 까지 떨치어 나타났었다. 그것은 다만 人間의 가슴에다 極度로 不安한것을 갖다 주었을 뿐이며 이 피비린내 나는 動亂의 結果로 不安意識을 더욱 느끼게 했고 人間으로서는 極端的으로 不幸한 危險을 敢行하게 하였다. 그것은 知的危險을 말함이다.

여기에서 現代文學은 劃期的인 線을 긋고 나왔든 것이다. 바로 초로 世代는 어둠의 帳幕 밑에서 切絶한 不安과 危機에 切感되고 있으며 그 어두운 그림자 밑에서 人間은 到處에서 慘酷한 襲雲을 받고있다. 人間은 其 暗黒과 不安의 잔혹 그늘 밑에서 쓰러져 가며 恐怖에 떨고있다. 은롱 世代는 죽음이란 恐怖마저 아무별지도 앓다는 뜻이 되어 버렸다. 이렇게 해서 人間은 未來에 對한 約束은 (메카니즘)이 內包한 危機에 依해서 壓到되고 말았다. 그것은 바로 現代人間의 살아 나가는 「삶」속에서 發見되는 問題들이다. 次次 險惡하여 가는 世界에서 現代라는 거의 不幸한 人間의 모기니 속

에서 生命의 焦燥와 恐怖의 呻吟에서 살아야 하는 것 같다.

最近에 人間의 살아 나가는에 必需되는 條項은 이러한 것들인 것이다. 이러한 運命을 克服해 가는것이 現代의 가장 誠實한 人間이라고 한다. 우리들은 「메카니즘」의 內包한 其 威脅에서 屈할줄 모르고 오히려 그것은 人間의 權利를 찾을수 있는것이다. 이처럼 現代라는 것은 人間들에게 뒤쳐워진 其 많은 悲劇과 苦痛을 받고 있으면서도 決코 그것에 死滅될수 없다는것이 現代文學이 가르치는 「眞意」인 것이다.

現代人間은 이처럼 苦痛스러워서 呻吟한다. 그것은 人間의 「삶」의 價値를 그들(十九世紀까지의 從來 人間觀 即 人間은 宇宙를 다스리는 그 무엇인 神의 攝理와 自然法則에 따르는 傳統的인 人間觀을 말함)에게 빼앗긴 때문이며 사르 잡혔기 때문인 것이다. 現代文學에 있어서 이러한것을 「잃어 버린時代」或은 「現代의 어둠」이니 「傳統의城」 또는 모오리츠·바테르氏의 「蠻族의 눈 밑에서」니 하고 부른다. 現代人間은 그날 그날을 산다는것은 그무엇에 對決하고 있다는 것이다. 니체가 豫告한 「虛無의 深淵」이라는지 「虛無에서 創造」니 하는 現代는 하나의 神話에 對한 意慾이며 이런 意慾에 잇어진 現代人이 神話들에 지나지 않다고 한다.

이제 實存主義가 「人本主義的 人間觀」에서 나왔든 좀사 했든 간에 모-두가 從來의 그런것에 對한 「人間의 自由」와 「人間의 解放」運動인것이다. 「장·쾨르트로」는 過去의 모든 觀念이나 律法이나 自然의 攝理 即 人間을 다스렸든 그 무수한것들에 對한 反抗行動에서 第一線에 나라 나고 있는것이다.

「世上의 모-든 파거는 조금도 소용이 없다. 그리하여 그것은 살아져 버린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해(理解)한 것도 그와 함께

살아져 버린다。」 「우리가 이러고 앉아서 우리들의 貴重한 존재를 유지하기 爲하여 먹고 마시고 하고 있지만 그러나 존재하는것, 그것에는 어떠한 이유(理由)도 일체 없다는 것입니다。」

장·썩르트르의 小說「구吐」에서 主人公을 通하여 부르짖는 過去의 一切를 否定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一切의 傳統, 一切의 經驗 一切의 價値는 過去와 함께 否定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다음에 其의 存在를 主張하는 것이다.

「저 들을 바라보았다. 그리하여 모든것이 시작된것은 그때다, 나는 그들이 「存在한다」는 것을 느꼈다 하여 그뒤 다른 吐氣가 있었다.」 「지금 나는 알고 있다. 내가 「存在」한다는 것은 —세계가 存在한다는 것— 그별다. 나는 세계가 「存在」한다는 것을 알고있다.」

이와같이 그는 문득 어느 瞬間 自己의 눈에 떠인 들을 보았을 때 그들이 存在 한다는 것을 깨닫고 「내가 存在한다는것」을 알고 世界가 存在 한다는것을 안다. 그의 「存在」에 對한 認識은 瞬間的이며 突發的이며 發作的이다. 그리고는 그만이다. 그리하여 그것은 몇번이 던지 되풀이 될뿐이다. 어떠한 過去의인 經驗이나 觀念이나, 生의 體系와도 結付되지 않는다. 들이면 「들」 나 (我)면 나의 存在를 認識하는 其 突發的이며 發作的인 「現在」는 「現在」로써 그걸 뿐이요, 其 以前 以後도, 其 以上도, 其 以下도 아무것도 아니다.

現代에 있어서 썩르트르는 어디까지나 存在를 認識하고 「人間의 位置」를 絶叫 하였든 것이다. 그래서 그는 「人間의 自由」를 부르짖었고 죽임에 對한 對決로써 「죽임은 나 以外の 다른 사람이 代身할수 없는 孤獨을 마땅한다. 죽임의 「無」와 對決하는 것은

「나」뿐인 것이다. 이와같이 無 앞에서 行動性을 끌어 내어 人間의 虛無性을 克服하려는 그 立場인 것이다. 그래서 現代를 生覺하면 「구로」가 난다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도보 화-로」나 「까뮤」나 이러한 佛蘭西의 作家들도 이와 비슷한 말을 하고있다. 모두가 自己의 生存보다 다른것을 顧치않은 「實存」 「存在의 價値」를 發見하는 實存主義哲學에 現代의 根據를 찾았으며고 했다. 따라서 마르토의 「人間條件」과 쾨르트의 「구로」와 까뮤의 「不條理」 「異邦人」 「反抗」 등은 實存的 共通的인 分子를 갖고 있는것이 아닐까, 現代文學에서 實存의 世界는 숨막히고, 어둡고, 濁한 人間世界를 끌어내어 그것들은 明析한 人間精神에 依하여 그대로 作品속에 나타난다. 반듯이 其 「誠實性」이 要請되고 其 「誠實性」은 다름아닌 明석한 意識을 잃지 않은데 있다. 그래서 實存的 傾向의 作品은 一般的으로 殘忍스러우리 만지 醜惡하게 客觀的으로 世界를 끌어내지, 되는것이 其 客觀的인 態度는 文學이 이미 어떠한 美學的인 追求가 아니라 世界의 意味와 人間條件의 探究에 그 目的이 있기 때문인 것이다. 그리고 西紀一九五〇年 노벨文學賞을 받은 美國의 『윌리엄 포크너』는 말하기를 『作家는 이제 人間의 本質的 問題가 아니고 人間의 生, 人間의 行動, 人間의 實存問題를 그려야 한다』고 했다. 『윌리엄 포크너』氏는 二十世紀 初葉에 있어서 獨逸의 『갈 맑스』의 經濟論과 오스트리아의 心理分析學者 『프로이트』의 心理學說이 全世界 學界를 휩쓴것은 周知의 事實이며 美國文壇에도 其 影響을 받게되어 一九二九年 經濟大不景氣 襲來後 作家中에 左익으로 돌아선 한 사람이다. 그리고 美國의 한 作家는 「갯덤이로 무려 일어서는 人間이 現代의 英雄이라」고 한말도 있다. 그러므로 現代는 明徹한 時代意識을 具有해야 될것은 더욱

強하게 要求한다. 現代는 分明히 混雜된 時間이라고 『개울구』는 말했고 그의 小說『二十五時』를 通해서 『現代란 人間의 살고있지 않은, 살수없는 時間이라』고 했고 『사람이 살수있는 正常的인 時間은 二十四時間이 지나버렸고 남은 한時間 만이 살수있는 現代라 했다. 그리고 美國의 新進作家 『노-만 매일라』氏는 그의 作品『裸者와 死者』를 通해서 戰爭에 매겨져 있는 一兵士의 生活로써 그것을 견디어 내는 조그마한 英雄的 心理를 分析해내고있다. 또한 『개울구』는 現代를 技術官僚主義로써 人間의 切절한 苦境에서 신음하는 時代라 했다.

『정의와 자유에 대한 人間の 갈망이 미지팡이라는 『오티엘』이 붙는다면 이미 人間은 存在할 수 없습니다. 人間은 역사상 가장 진보된 문명을 가질 수가 있는데 이 문명마저 인제는 人間을 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여하한 人間도 금주는 타인을 자유롭게 한다든가, 自己自身을 자유로이 하는데 성공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人間은 살아갈수록 점점 소수로 줄어들테고, 손은 결박 당할테지요. 그들은 벌써 자기자신을 위해서도 자기의 동지를 위해서도 아무런 힘이될수 없을 것입니다. 人間은 기계의 여사슬로 묶일 따름입니다. 당신도 그럴테지요. — 現代 西歐문명이 우리를 人間한테 들수있는 전부이며 수감일테지요!』

『來日부거는 (기계무용)이라는 제목으로 첫막이 열릴테지요, 그것은 人間이 나오지 않는 연극입니다. 무대에는 『로봇트』의 기계와 열줄이 없는 시민 빛에 나타나지 않을겁니다』

小說의 主人公 드라이안, 코르가를 通하여 人間은 人間이 져트온 비서 生命의 공포를 느꼈고 人間의 손에서 이루어진 現代科學文明은 하로 하로 人間의 不安과 絶望을 뒤흔들었다는 것이다. 그러

모로 現代는 現代의 實況에서 해여남을 호소하고 過去의 狹은 束縛에 조금도 抱礙 받을 必要가 없다고 한다.

그러므로 現代文學의 方向은 죽느냐 사느냐의 生死를 걸고있는 生 自体를 究極的으로 追究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一介의 形式이 伸 裁할수 없는것이다. 作品의 形式보다 內容을, 觀念보다 存在를, 本 質보다 實存을 重要視한다면 思想없는 文學을 아무리 形式과 其 手法, 技巧에 있어서 卓越하다든 치드라모 純文學이니 또는 本格的이니 말할수 없지된다는 것이며 하중에 文章이 아름답다든가 정찬하다든가 理致에 맞는다 든가, 훌륭 하다든가의 그런 外廓的인 樣式의 관을 執수없다는 말이다. 다시말하면 現代文學에 人間은 죽을 이니 ㅁ 삶이라는 悲劇의 極限에서 울부짖는 悲痛한 아우성이 그대로 통 처져서 하나의 리듬을 이루고 其 文章이 修業이 되어야 한다는 말 이다. 다만 本質과 觀念이 先行하는 여러가지 形態下에서 技巧化 되는것은 아닌것이다.

(一九五六, 八月) (筆者 國文科三學年) (未完)

(153 페이지의 계속)

眞相을 暴露하고 科學의精神을 發揮했으니만지 自然主義와 주도원은 不可分の 關係에 있다고 보겠다.

이렇게 주도원이 發揮한 自然主義思想은 諸國家의 文壇에서 또한 諸國家의 環境과 國民性에 依하여 形形色色の 文藝 色彩를 더이제 띄웠던 것은 말할 것도 없는 일이다.

(筆者 國文科二年)